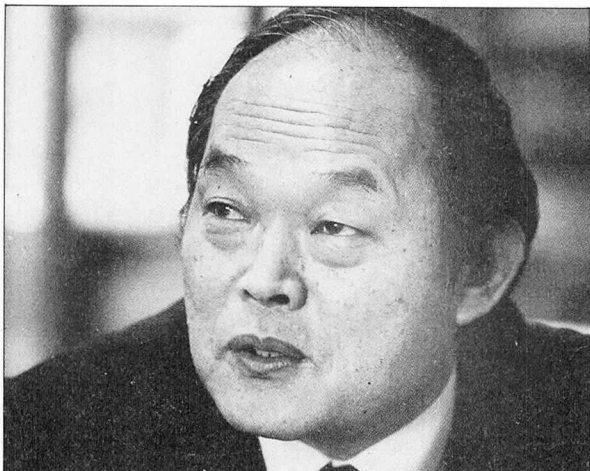


“책임을 졌으니 열심히 뛰겠다”

한글출판협동조합 새 이사장 羅慶安씨



출판계 유일의 共販기구로 220여개 출판사가 가입돼 있는 한글출판협동조합 제24대 이사장에 기전연구사 대표 羅慶安씨(55)가 지난달 20일 선출됐다. 전임 이사장 尹炯斗씨(범우사 대표)의 사퇴로 잔여임기 1년을 채울 새 이사장에 선출된 羅이사장은 아직 취임 한 달도 채 안되는 기간이지만 특유의 적극성과 추진력으로 벌써부터 조합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책임을 졌으니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羅이사장이 우선적인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조합의 매출을 늘리는 일.

“조합은 협회와는 달리 이익단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사하는 곳이죠. 따라서, 조합이 할 일은 조합사의 상품, 곧 책을 제대로 공급하고 많이 팔아주어서 조합사의 이익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32억5천만원에 달하는 출자액의 증가와 그에 따른 여신업무에 비해 조합 고유의 업무인 매출신장은 상대적으로 덜했던 편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주력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관장해보니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는데, 예컨대 조합과 도매상 및 총판들과의 관계 정립에 애매한 구석이 많다고 羅이사장은 전한다. 또,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서점 직거래를 위주로 하면서 그외의 여분만을 조합을 통해 소화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꼽는다.

이와 함께 羅이사장이 3~4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입안, 그 기틀을 다지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창고 및 配送회사의 설립이다. 羅이사장은 조합사의 출자액이 5만주, 그러니까 50억원 정도가 되면 서울 번두리에 만평남짓의 부지를 확보해서 창고 및 배송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가 아마 1992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제 임기중에 끝낼 일은 못되죠. 따라서, 저로서는 구체적인 입안과 기틀

을 다지는 일에 그치겠지만, 누군가에 의해 그것의 설립이 완료된다면 출판계 일반의 창고난 해소는 물론, 부수적으로는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출판단지 또한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인지 羅이사장은 출판계의 숙원인 대형 유통기구의 설립에도 관심이 많다. “대형유통기구의 설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범출판계적 단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羅이사장의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유통문제를 둘러싼 출판계 내부의 상충된 이해가 조정되는 방향으로 유통기구 설립이 논의돼야죠. 가령, 단행본출판사가 원하는 유통구조와 전집출판사나 참고서, 교과서, 잡지출판사가 원하는 그것이 현재 상충되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수렴시킬 수 있는 범출판계적 단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원래 목장을 운영하던 羅이사장이 출판계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1973년. 가지고 있던 땅과 소를 팔아 “처음부터 거창하게” 출판을 시작했다는데, 부동산 처분으로 출판사의 적자를 메꿔가던 초창기 7년을 거쳐, 이제는 연간 50~60 종의 신간을 내는 과학기술도서의 명문사로 기전연구사를 키워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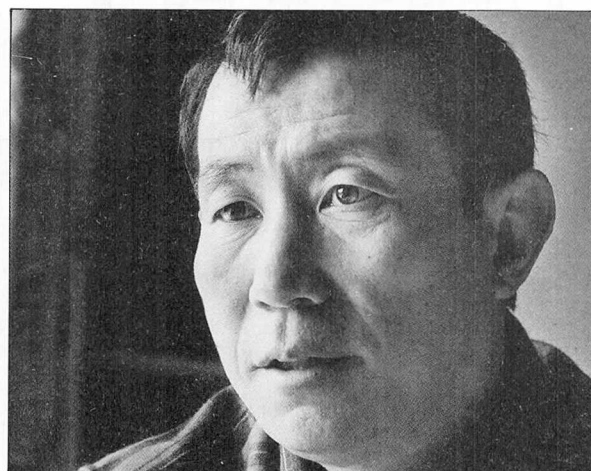
학문이나 이론보다는 과학기술의 현장실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책들을 주로 펴냈고, 컴퓨터 등 첨단기술분야의 도서 개발에도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그런 기전연구사의 출판물이 우리 과학기술의 저변을 다지고 수준을 높이는 데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감과 보람을 羅이사장은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조합과 기전연구사 양쪽의 일을 보느라 몸과 마음이 다 바쁜 羅이사장에게 욕심이 있다면, “조합을 맡으면 자기 사업을 망치더라는 우스개소리가 있는데, 조합도 잘되게 하고 자기 사업도 성공하고 싶다”는 것이다.

—강철주 기자

월남전 소설로 美문단에 진출

美출판사와 계약맺은 소설가 安正孝씨



소설가이자 번역문학가인 安正孝씨(48)가 자신의 장편소설 「전쟁과 도시」와 「갈쌈」을 손수 英譯, 미국 소호출판사와의 정식출판계약을 통해 미국문단에 선보이게 됐다.

「전쟁과 도시」(영문제목 *White Badge*)는 5월초 출간을 앞두고 이미 영문원고의 교정까지 마무리된 상태이며, 「갈쌈」(*Children of War*) 역시 安정효씨가 5월경 「전쟁과 도시」의 ‘프로모션 투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대로 소호출판사와 계약을 마무리지를 예정.

그동안 국내작품의 외국어번역과 출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차원의 보조에 힘입은 자비출판에 가까웠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이번 安정효씨의 작품출간은 국내작가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외국출판사와 정식계약을 맺고 현지문단에 데뷔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가 이처럼 여느 국내작가들로서는 하기 힘든 일을 혼자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자신이 영어에 능통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타임스」 기자생활을 거쳐 그동안 130여편의 영어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해온 그는, 사실 작가로서보다는 번역작가로서 독자들에게 친숙해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번역과 창작을 구별하고 싶지는 않으나, 대학시절부터 창작에 뜻을 둔 작가로서 굳이 따지자면 그간의 번역작업은 일종의 외도를 한 셈이었다”고 말한다.

안정효씨가 미국문단의 진출을 꿈꿔왔던 것은 대학시절부터. 당시 10여편의 작품을 영문으로 집필, 미국출판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었으나 이제 30여년만에 그 꿈을 이루게 된 셈이다. 이것저것 거처적거리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 서울을 떠나, 4개월 동안 텍사스주에 머물면서 「전쟁과 도시」의 영역에만 매달렸을 정도로 그가 이번 일에 기울인 정성은 대단했다.

“「전쟁과 도시」는 월남전 중군기자였을 당시 썼던 영문기사들을 바탕으로 하여 집필한 작품이어서 이번에 다시 영역하는데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월남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도 참전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동양에서 벌어진 전쟁을 동양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작품과 6·25를 다룬 「갈쌈」이 출판사의 관심을 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번역작가의 한사람으로서 安정효씨는 국내 출판계의 번역에 대한 인식풍토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최근 그는 한국문학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아름다운 靈歌」(한말숙 지음) 번역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한차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교열과 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번역물에 관한 번역저작권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번역저작권에 대한 국내의 첫번째 법적 인정이 된다.

안정효씨는 이번 일이 앞으로 번역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좋은 판례로 남게 되길 바라고 말하며, 국내 출판계의 번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는 번역자가 번역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이 관례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자를 심부름꾼과 다름없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번역자가 마음놓고 좋은 번역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는 「갈쌈」의 영역이 끝나는데로 국내 정치상황을 주제로 한 작품을 영어로 직접 집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애리 기자